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3.01.14(토) 11:00

2023년도 체육시민연대

제 1차 집행위원회 개최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3년도 제3호

###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김포FC는 가해 지도자를 즉시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경기장의 안과 박

**최고 투수로 거듭난 안우진, WBC에서 볼 수 없다고?**

최민규 한국야구학회 이사 / 시사IN

###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초등생 제자 150회 때린 체육관장 2심도 불복, 대법원 상고**

한귀섭 뉴스기자

###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증가

**“수영, 골프 인구 늘고 등산객은 줄고”..생활체육 증가세**

이명동 뉴시스기자

###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선수협 이근호 회장 “2023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인 최저연봉 인상”**

이상필 스포츠투데이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남북 탁구 추진하다 무산돼 사업비 날린 체육단체..법원 “협회 책임”**

김성준 디지털타임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김포FC는 가해 지도자를 즉시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4월 27일, 김포FC의 유소년팀(U-18) 소속 어린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말 해맑고 멋진 아들이었다는 이 아이가 그토록 좋아했던 축구를 포기하고 부모와 친구들을 등지면서까지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도자들의 폭언과 편애, 협박, 그리고 일부 친구들의 모욕과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구단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같은 팀 선수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김포FC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유소년팀 지도자 전원과 재계약을 완료했다. 구단이 앞장서 공식적으로 2차 가해를 한 셈이다. 폭언과 편애, 협박과 괴롭힘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들을 다시 가르치게 된 것이다. 김포FC는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아이의 의지가 좀 더 강하지 못해서, 좀 더 버텨내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하는 것인가?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책임이라고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것인가? 김포FC는 아이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못 느끼는가?

김포FC 관계자는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징계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외부기관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최근에 이 사건을 8개월 넘게 조사해온 스포츠윤리센터는 3년 전 참고인들까지 모두 조사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감독·코치 등 지도자들과 일부 동료 선수들에 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권리가 있다. 구단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김포FC는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과 아무 일 없다는 듯 재계약하고 같은 팀 선수들을 다시 지도하게 했다. 외부기관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제때 필요한 조치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합리화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의 책임이 엄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구단의 책임은 이보다 더 무겁다. 일부 지도자의 일탈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일은 결코 아니다. 나쁜 환경을 눈감은 구단은 암묵적 공범이다. 우리는 김포FC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스포츠는 인권이다. 스포츠 현장 역시 인권 친화적이어야 한다. 인권을 말하면서 그 안에 인간의 존엄성이 없다면 그것은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포FC는 구단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김포FC는 인권친화적 구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발표하라.

셋째, 김포FC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즉각 이행하고 해당 지도자의 재계약을 즉각 철회하라.

넷째, 대한축구협회는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인권보호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년 1월 17일

체육시민연대

# 최고 투수로 거듭난 안우진, WBC에서 볼 수 없다고?

메이저리그 최고 스타 반열에 오른 오타니 쇼헤이(28)는 2023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일본 대표로 뛴다. 투타 겸업으로 유명한 오타니는 최고 시속 165km를 던지는 강속구 투수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안우진(23)은 WBC 무대에 서지 못할 것이다. 2022년 11월18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대회 주관사인 WBCCI에 50인의 예비 명단을 제출했다. 이 명단에 안우진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안우진은 휘문고 3학년이던 2017년 야구부 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그해 8월 휘문고 학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안우진을 포함한 가해자 4명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명백한 하자'라며 학폭위 재소집을 요구했다. 당시 교육청은 "학교가 '학폭' 사건을 은폐·축소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같은 해 9월 다시 열린 학폭위는 안우진에게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으로 안우진은 11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았다. 안우진과 가족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듬해 1월에 내려진 재심 결과는 같았다. 폭력행위로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영구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게 당시 규정이었다. 그래서 안우진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대한체육회 소관이 아닌 WBC 대표는 이 징계와 무관하다. 하지만 KBO는 학폭 사건을 일으킨 안우진을 대표로 뽑지 않았다.

안우진은 2022년 시속 160km 강속구를 던지며 프로야구 최고 투수로 거듭났다. 그리고 시즌 뒤 과거 학폭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 11월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우진은 "여론의 질타 속에 사안의 구체적 진실은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는 네 글자의 주홍글씨로 모든 진실을 덮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안우진의 법률대리인인 백성문 변호사는 "2017년 KBSA와 대한체육회 징계는 '여론에 의한 징계'였다고 본다. 징계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앞서 여론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종의 '여론전'을 했지만 여론은 별달리 움직이지 않았다.

KBO의 입장도 여전하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지난 12월27일 "안우진을 명단에서 제외한 결정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 안우진을 대표팀에 뽑기 위해선 학폭 사건과 징계에 대한 '현상 변경'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 장 계속



## “절대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

안우진의 입장문, 그리고 대리인이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진실’은 두 가지였다.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학폭 사실은 있었지만 정도가 경미했다’.

하지만 두 주장은 ‘현상 변경’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 두 개는 안우진이 2018년 1월 대한체육회 재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안우진 측이 징계무효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의견을 냈다.

2017년 학폭이 경미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전문가도 여럿이다. 당시 휘문고 학폭위 회의록에 따르면 안우진은 2017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총 5건의 폭력행위를 했고 모두 휴대전화, 야구공, 배트(손잡이), 야구벨트 같은 도구를 이용했다.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은 회의록과 사건 경찰조서 등 공식 자료를 검토한 뒤 “절대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안우진 측이 2022년 11월 본격적으로 언론 대응에 나선 뒤 휘문고 전 코치 김 아무개씨는 “안우진이 나머지 가해 학생들 대학 진학을 위해 안고 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안우진이 동료들 잘못을 뒤집어썼다는 뉘앙스였다. 학폭위 프로세스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당시 가해자 네 명 가운데 안우진만 유일하게 처분을 받은 이유는 그의 잘못이 가장 무거웠기 때문이다. 학폭위 회의록에서 다른 폭력행위 8건 가운데 5건이 안우진 혼자 저지른 일이었다.

휘문고는 프로야구 선수를 여럿 배출한 명문이다. 그래서 야구부 주위에는 프로야구 스카우트나 에이전트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복수 인사는 “당시 휘문고는 폭력 문제로 여러 말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안우진의 ‘진실’은 설명력이 떨어지는 반면, 그가 5년 전 학폭 사건을 새로 끄집어낸 ‘동기’는 명확해 보인다. 프로야구 선수는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기 전까지 구단의 독점계약권인 보류권에 묶인다. FA 자격 취득에는 8시즌이 걸린다. 투수라면 96이닝 이상, 1군 등록일수 145일 이상이 1시즌으로 간주된다. 안우진은 프로 첫 시즌에 학폭 사건에 따른 구단 자체 징계와 2군행 등으로 1시즌을 채우지 못했다. WBC 대표선수로 뽑히면 1군 등록일수 최소 10일, 최대 60일을 포상으로 받아 FA를 1년 앞당길 수 있다. 법원이 대한체육회 징계를 무효화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발탁될 경우 병역특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동기 때문인지 안우진은 2017년 학폭 사건에 대해 “선배로서 훈계 차원의 작은 행동”이라고 했다. 입장문을 통해 안우진을 옹호한 당시 학폭 피해자 세 명은 “피해자로 지목된 저희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데 왜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라고 지칭되는지 저희조차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스포츠 폭력은 한국 체육계의 해묵은 문제였다. 여러 노력으로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추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년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중고생 운동선수 78.8%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019년 조사에선 중학교 21.5%, 고등학교 23.7%로 완화됐다.

스포츠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폭력이 불가피하다’며 용인하는 태도가 여전히 체육계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안우진과 후배들의 입장문에서도 폭력 범위를 축소하거나 용인하는 태도가 보인다. 안우진은 이미 과거 학폭 사건으로 대가를 치렀다. 미성년자의 잘못은 성인의 그것에 비해 좀 더 정상이 참작돼야 한다. 하지만 18세 고교생이 아닌 23세 성인 안우진이 지금 학폭에 대해 보이는 입장은 과거 잘못과는 별개로 비판받아야 한다.

# 초등생 제자 150회 때린 체육관장 2심도 불복, 대법원 상고



강원 원주에서 피시방을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초등생 제자를 폭행한 30대 관장이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체육관 관장 A씨(37)는 최근 선고된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A씨는 당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취업제한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상고 이유다.

2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은 최근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유지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춘천지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A씨에게 유리하게 양형이 고려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A씨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지역 체육행사에도 참가하는 등 대범한 행동을 보여왔다.

이에 폭행을 당한 초등생 아이의 부모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지역체육계에서도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약속을 어기고 피시방을 갔다는 이유로 제자 B군(12)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머리, 얼굴, 배 등을 약 150회에 걸쳐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수영, 골프 인구 늘고 등산객은 줄고” 생활체육 증가세

지난해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수영이나 축구, 골프 등을 즐기는 인구가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생활체육 참여율이 61.2%로 전년도 60.8%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에 이어 회복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 체육활동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 청·장년층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했다. 특히 30대는 65.3%로 전년 대비 7.8%포인트 상승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청소년층과 노년층의 참여율은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종목별로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걷기(36.8%), 보디빌딩(12.8%), 등산(10.5%), 수영(8.5%) 순으로 많이 참여했다. 전년도 3위였던 보디빌딩이 2위로 상승했다. 특히 수영은 전년도 4.0%(10위)에서 8.5%(4위)로 6계단 상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축구·풋살이 2.5%포인트, 배드민턴이 1.2%포인트, 골프가 1%포인트 증가했다.

2020년에 비해서는 수영과 골프가 각각 2.3%포인트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응답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수영(9.3%), 경제적 여유가 되면 골프(16.2%)를 하고 싶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참여율이 가장 크게 떨어진 운동은 등산이었다. 전년도 13.5%에서 10.5%로 하락했다. 2020년(17.6%)과 비교해 7.1%포인트가 떨어졌다.

체육활동 참여 이유로는 건강 유지와 체력 증진(77.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체중 조절과 체형관리(47.8%), 스트레스 해소(43.4%), 여가선용(35.7%) 순으로 응답했다.

체육활동 비참여자는 그 이유로 체육활동 가능 시간 부족(7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0년 조사부터 1위는 모두 시간 부족이었다. 다음으로 체육활동에 관한 관심 부족(42.1%),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29.3%), 체육활동 지출 비용 부담(26.0%) 등 순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 종류별로는 민간체육시설(26.8%), 공공 체육시설(22.7%), 기타 체육시설(10.8%)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전년과 달리 민간체육시설 이용률이 공공 체육시설 이용률을 앞질렀다.

민간체육시설 중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체력단련장(39.6%), 수영장(14.3%), 골프연습장(13.6%) 순으로 집계됐다.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간이운동장(52.4%), 체력단련장(22.7%), 수영장(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1년 9월~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 이상 국민 9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 선수협 이근호 회장 “2023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인 최저연봉 인상”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이근호 회장이 새해 첫 과제로 신인선수 최저연봉 인상 문제를 거론했다.

이근호 회장은 "지난해 바쁘게 구단들을 방문해 선수 인권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 캠페인 행사 진행과 원데이 클래스, 자선경기 행사와 정기총회까지 하다 보니 일 년이 물 흐르듯 빠르게 지나갔다. 2023년에도 선수협은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쉬지 않고 달리고자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인선수 최저연봉 인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인선수의 최저 연봉 문제는 선수협이 예전부터 매우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염기훈 부회장은 "프로축구 신인선수 최저연봉 문제에 대한 고충을 많이 받았다. 제가 알아보니 2016년 자유계약이 처음 도입된 시절 최저시급이 6030원이다. 이때 정해진 신인선수 최저연봉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약 65% 상승이 되었는데도 선수들의 연봉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023년 기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대략 월 200만원, 연봉으로 2412만6960원을 받는다. 현재 신인선수들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최저연봉과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

근무 형태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가 아닌 만큼 실상은 최저연봉보다 낮은 연봉으로 현재 축구 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한 액수이며 이에 선수협은 현재 물가와 맞지 않는 최저연봉문제를 진중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염기훈 부회장은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선수들이 생활조차 되지 않는 돈을 받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운동에만 전념해야 하는 프로선수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최저 연봉 2400만원으로 생활하라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연봉 양극화가 심하다고 기사화된 프로야구의 경우 최저연봉은 3000만 원, 프로농구의 경우는 3500만 원, 프로배구는 4000만 원으로 프로축구와는 차이가 있다. 리그의 질적 하락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연봉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장은 "이에 선수협은 연맹 사무국과 저연봉 선수들의 처우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한 가수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에서도 구인공고를 2400-2600만 원으로 올려 이슈로 크게 번진 상황이기까지 하다.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받고 근본적인 최저연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총장은 "현재 물가와 맞지 않는 최저연봉은 선수의 사기 저하 및 오롯이 운동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어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선수협 사무국은 보고 있다. 이에 선수협은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자료를 모아 2023년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최저연봉 인상은 꼭 필요하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 모든 선수의 의견을 모아 좋은 결론을 만들고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한편, 선수협은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자료를 모아 2023년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 남북 탁구 추진하다 무산돼 사업비 날린 체육단체 법원 "협회 책임"

남북 고교 탁구 친선경기를 추진하다가 무산돼 사업비를 날린 체육단체에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민간 남북교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3-1부(황기선·이상윤·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체육회(체육회)가 남북체육교류협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가 6191만원을 배상하고 남은 사업비 253만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협회와 체육회는 2018년 12월 업무협약을 맺어 2019년 1월부터 약 한 달간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서 남북 고등학교 탁구 합동훈련·친선경기를 열기로 약속했다. 협회가 기획부터 정부 승인까지 사업 전체를 대행하고 체육회는 사업비를 대기로 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행사를 엿새 앞두고 "북한선수단 체재비 지원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해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당시 선수단이 이미 중국에 도착해 훈련을 준비하는 등 사업비가 일부 집행된 상태였다.

체육회는 "협회의 전문성이 부족해 협약에 따른 업무를 불이행했고 대행업체에 운영비 70%를 서둘러 지출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집행된 사업비를 물어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통일부장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 아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협약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장관 승인이 있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협회는 승인을 신청하기도 전에 홍보업체 등에 계약금을 조기 집행했다. 승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지 않은 채 기존 관례에 의존해 지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승인이 불허된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부의 판단에 의한 것인 점,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첫 훈련일까지 기간이 19일에 불과해 숙박시설 등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었던 점,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북한과 연락이 자유롭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협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 스포츠산업계에 2,321억 원 용자 지원

<https://www.mbn.co.kr/news/sports/4896224>

교실서 사이클 탄다...경기교육청, 'IT 체육교실'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1075700061?input=1195m>

전북체육회, 2023년 체육대회 풍성... "지역경제 보탬"

<https://www.nocutnews.co.kr/news/5880227>

100년 전 오늘, 종로 체육관에 모인 청년들 [청계천 옆 사진관]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14/117435152/1>

"잘 먹고 많이 걸으세요"... 서울 중구, 보건지소·체육관광과 신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1601031027053001>

도내 지자체, 선수 인권보호 조례 미비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4991>

[B tv 전주뉴스] 전주 실외 체육시설 7곳, 설 연휴 기간 무료 개방

[http://ch1.skb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4&p\\_no=151330](http://ch1.skb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4&p_no=151330)

경북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신년인사회 개최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11514274160404>

호날두, 조국 등지고 돈 택하나...사우디 홍보 5300억 더 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2476>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